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CHRIST THE KING SUNDAY

주후 2023년 11월 2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70 장 “피난처 있으니” (통일 7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8 번 시편 106 편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Romans) 10:8-15	임소영 집사
찬 양 Anthem	“날마다”	찬양대
설 교 Sermon	“말씀이 네게 가까워” (The Word Is Near You)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Song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338 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통일 36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셔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전 10:3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개혁개정 롬10:8)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we are proclaiming” (NIV Romans 10: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26 (주일)	11/27 (월)	11/28 (화)	11/29 (수)	11/30 (목)	12/1 (금)	12/2 (토)
	대상22	대상23	대상24,25	대상26,27	대상28	대상29	대하1
본문	벧전3	벧전4	벧전5	벧후1	벧후2	벧후3	요일1
	미1	미2	미3	미4	미5	미6	미7
	눅10	눅11	눅12	눅13	눅14	눅15	눅16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29수 오후7:30)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벧전3:1-2)
토요 새벽기도회 (12/2토 오전6:30)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소서”(시119:153-160)

지난 주일(11/19, 추수 감사 주일) 말씀

“여기까지 도우셨나니” (삼상 7:5-14)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말엽에는, (급기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황폐해졌던 이스라엘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또한 “미스바로 함께 모이라”고 선포했습니다(삼상 7:5-6). 그런데, 이렇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하며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놀라운 국가적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즈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레로 제압하셨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은 한 돌을 취하여, “도움의 바위”라는 뜻의 “에벤에셀” 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도움의 바위”라는 뜻의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본문(삼상 7:12)에만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도 두 번(삼상 4:1, 삼상 5:1) 더 나오는데... 놀랍게도, (바로) 이곳 “에벤에셀”에서, (과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또한) 법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게, (과거)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패배와 죽음, 그리고 처절한 절망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처럼) 빼 아픈 실패와 깊은 절망의 장소가, (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장소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를 올려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